

U-23 한국축구 두 살 어린 일본에 굴욕

20일 준결승서 日에 1-0패… 시종일관 수세 속 팀 전술·개인 능력 격차 재확인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두 살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에 덜미를 잡혀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민성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23 대표팀은 20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암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4강전에서 일본에 0-1로 졌다.

한국은 우승을 차지했던 2020년 대회 이후 6년 만에 4강에 올랐으나 숙적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하고 3·4위전으로 밀렸다.

이 감독은 지난 호주와의 8강전과 동일한 리인업을 내세웠다.

반면 2028년 로스엔젤레스(LA) 올림픽을 대비해 21세 이하(U-21) 선수들로 팀을 꾸린 일본은 요르단과의 8강전과 비교해 5명을 제외하고 선발 명단을 모두 바꾸는 큰 변화로 한국을 압박했다.

한국은 전반 내내 일본의 강한 압박에 가로막혀 일본 진영으로 좀처럼 가지 못했다.

사실상 '반코트 경기'에 가까운 양상으로 시종일관 수세에 몰리던 한국은 전반 11분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았다.

일본 나가노 슈토의 뒷공간을 허무는 롱패스가 발단이 됐다.

이를 잡아낸 미치와키 유타카가

골키퍼와 맞서는 일대일 찬스에서 과감한 슈팅을 날렸으나 공이 골대 오른쪽을 살짝 벗나가며 한국은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반격에 나선 한국은 전반 26분 강성진의 프리킥을 김용학이 감각적인 헤더로 연결했지만, 일본 아라키 루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다.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던 한국은 결국 전반 36분 선제골을 헌납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넘어온 크

로스를 나가노가 헤더로 연결했고, 골키퍼 흥성민이 이를 쳐냈으나 훌러나온 공을 고이즈미 가이토가 밀어 넣어 한국의 골문을 열었다.

전반 슈팅 수 1-10의 절대 열세에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후반 들어 공세를 강화하며 반전을 꾀했으나 좀처럼 골 운이 따르지 않았다.

후반 13분 장석환이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시도한 강력한 원발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탄식을 자아냈다.

이어 후반 17분에는 코너킥 상황 중 문전 혼전에서 강성진이 위협적인 시저스킥을 날렸으나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한국은 후반 43분 강성진과 김동진 대신 정재상(대구)과 정지훈(광주)을 교체 투입하며 마지막까지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한국은 후반에는 슈팅 수에서 7-2로 앞서는 등 일본의 골문을 끊임 없이 두드렸으나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다.

연합뉴스



20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암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한국과 일본의 4강전에서 한국 백기온이 상대 선수의 태클에 저항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을 연상케 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성화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 제공

밀라노 동계올림픽 성화대 디자인 공개 올림픽 최초 2개의 성화대로 구 형태로 제작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성화대 디자인이 공개됐다.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화대는 강하고 가벼운 항공용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며 다음 달 22일 폐회식 까지 올림픽 현장을 밝힌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평화의 아치' (아르코 델라 파체·Arco della Pace)와 코르티나담페초 '디보나 광장' (Piazza Dibona)에 설치될 두 개의 성화대 이미지를 소개했다.

성화대는 건물 아치 안에 구 형태로 설치된다. 과거 주로 봉 형태로 디자인됐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조직위는 "성화대는 다빈치의 작품으로 알려진 매듭(Knots)에서 착안했다"며 "성화대는 이탈리아와 다빈치의 역사적 연결고리가 되면서 생명, 에너지, 태양의 의미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화대는 강하고 가벼운 항공용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며 다음 달 22일 폐회식 까지 올림픽 현장을 밝힌다. 동계 올림픽 역사상 2개의 성화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올림픽은 밀라노, 코르티나, 발델리나, 발디피엠 4개의 클러스터(대회 장소)에서 경기가 펼쳐지며 선수촌도 6곳에 분산돼 있다.

개회식 역시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곳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성화는 이탈리아 110개 주, 60개 도시를 거쳐 1만 2000km를 달린 뒤

개회식 때 두 곳 성화대에서 동시에 점화된다. 최종 점화자는 개회식 현장에서 공개된다.

연합뉴스

'귀순 유도 영웅' 이창수 전 대표팀 코치 별세

북한 유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일평생 한국 유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이창수 전 유도 대표팀 코치가 5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유족과 대한유도회에 따르면 이전 코치는 20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1967년 3월 북한에서 태어난 이창수 코치는 198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는 등 북한 유도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다 1991년 한국으로 귀신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에게 패했다는 이유로 강제 노역을 하는 등 고초를 겪었고, 이에 1991년 스페인 세계선수권대

회에 참가했다가 독일에서 탈북했다.

당시 이 코치의 깜짝 망명은 남북간 체육회담을 무산시키는 등 파장을 일으켰다.

이 코치는 한국에 귀순한 지 1년 만에 대만 유도 국가대표 출신 진영진 씨와 결혼한 뒤 호진, 문진, 위진 3형제를 낳았다. 아들 세 명은 모두 유도를 했고, 차남인 이문진은 2019 아부다비 그랜드슬램 남자 81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이 코치는 한국마사회 코치, 대

만 유도 대표팀 지도자, 한국 유도 대표팀 코치와 대표팀 트레이닝 코치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베트남, 중국과 준결승 0-3 완패

한국과 3·4위전… 일본-중국은 결승전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무대에서 한국인 사령탑 간 맞대결은 결승이 아닌 3·4위전에서 이뤄지게 됐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이 21일 오전(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프린스 암둘라 알 파이살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국과의 대회 4강전에서 후반에만 세 골을 내주고 0-3으로 완패했다.

박항서 감독 지휘 아래 역대 최고 성적(준우승)을 거둔 2018년 중국 대회 이후 8년 만에 4강에 오른 베트남은 역대 두 번째 결승 진출에 도전했으나 무산됐다.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3전 전승을 포함해 8강까지 무패 행진을 벌였지만, 중국의 벽은 넘지 못했다.

베트남은 이민성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과 24일 0시 제다의 킹 암둘라 알 파이살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벌인다.

3·4위전을 치른다.

베트남은 중국을 맞아 압박을 잘 이겨내며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다. 전반 두 차례 유효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히기도 했다.

하지만 베트남은 후반 들어서 중국의 거친 공세에 흔들리며 무너졌다. 후반 시작 2분 만에 코너킥에 이은 평샤오의 헤딩골로 기선을 빼앗겼다. 중앙 수비수 평샤오의 이번 대회 2호 골이자 중국의 두 번째 골이었다.

기세가 살아난 중국은 후반 7분 상위왕이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공을 이어받은 뒤 원발 터닝슛으로

베트남 골문을 열어 2-0으로 달아났다. 베트남은 추가시간이 흐르던 후반 53분 왕위등에게 세 번째 골을 내주고 무릎을 끊었다.

중국은 조별리그(1승 2무)부터 5경기 연속 무실점(4득점)을 이어가며 이제 대회사상 첫 우승에 한 걸음만 남겨뒀다. 중국이 이 대회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중국은 대회 2연패 및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노리는 일본과 25일 0시 제다의 프린스 암둘라 알 파이살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김 종 수
(부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세광수산 대표 강명주



고 경 호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기관



현 계 진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례리 처가 일동

제주도학원연합회장



고 유 미

제21대 제주도학원연합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사귀포시학원연합회 회장 김영진 외 회원 일동